

# 가을 서점가 주인공은 '스크린 셀러'

김영하·김훈·정유정 등

영화화 된 소설 판매량 급증

인기 작가 탄탄한 내용 기대감

베스트셀러를 원작으로 한 소설이 잇따라 영화화되면서 가을 서점가에 소설 열풍이 불고 있다.

특히 '살인자의 기억법', '남한산성', '7년의 밤' 등 원작을 소재로 한 베스트셀러의 영화 개봉과 맞물리면서 소설의 인기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작가에 대한 기대감, 탄탄한 스토리가 독자들에게 어필을 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예스24 홍보담당 KPR 최지영 씨는 "7월 개봉하는 '살인자의 기억법'은 TV예능프로그램 '알쓸신잡'(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에 출연한 김영하 작가의 언급과 영화 이슈가 겹쳐 판매량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특히 '살인자의 기억법'은 영화 예고편 발표를 기준(2017년 8월8일)으로 일주일 간 전후증감률이 124%에 달했다.

인터파크 홍보팀 김진경 씨는 "원작소설 '살인자의 기억법'은 개봉을 앞두고 이번 주 들어 베스트셀러 2위를 기록할 만큼 상승세가 뚜렷하다"며 "위낙 인기 있는 작가인데다 독특한 소설 세계가 독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영하의 소설 '살인자의 기억법'(문학동네)은 저자가 지난 2013년 데뷔한 지 19년만에 펴낸 장편소설로, 범프 스타일링을 바탕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펼쳐 보인다. 발표하는 작품마다 매번 새로운 스타일을 선보이며 독자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던 김영하의 야심작이다.

평론가 권희철은 해설에서 "'살인자의 기억법'은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공포 체험에 대한 기록이다. 그것은 그저 알츠하이머의 증상을 과장하는 것이 아니다. 김영하는 이것을 반아침경의 악몽으로 형상화한다. 반아침경이라니 그것은 고통과 번뇌에 시달리는 우리들에게 깨달음과 평온을 선물하는 불교 가르침의 정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악몽이 될 수 있는가"라고 평한다.

이번 영화 '살인자의 기억법'에서 기억을 잃어가는 살인자로 변신한 살경구의 연기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는 독자들도 적지 않다. 소설과 영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는 재미도 쏠쏠할 것이라는 후문이다.



영화 '남한산성' 장면



살인자의 기억법

7년의 밤

10월 개봉 예정인 영화 '남한산성'은 김훈의 원작소설 '남한산성'을 토대로 제작된다. 지난 2007년 출간된 지 십 년 만에 100쇄를 찍을 만큼 독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스타일리스트이자 개성적인 문체로 매니아층을 확보하고 있는 김훈 작가의 소설 스타일과 역사관, 미의식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소설은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남한산성에 갇힌 인조와 그 앞에서 벌어진 주전파와 주화파의 다툼을 줄거리로 한다. 1636년 병자호란 당시 고립무원의 남한산성 47일간의 시간이 생생하게 그려진다. '꺼져가는 조국의 운명' 앞에서 고통 받는 민초들의 삶을 그려내는 작가의 목소리는 준엄하면서도 빠져들게 한다.

이번 영화에서는 고뇌하는 왕 인조(박해일), 적의 공격을 방어하는 이시백(박희순), 이조판서 최명길(이병헌)의 이야기가 담겨 원소설과 비교할 수 있는 다양한 생각거리를 던져준다.

예스24 홍보 담당 KPR 최지영 씨는 "소설 '남한산성' 역시 영화 개봉 기사 이후(2017년 7월26일) 전후증감률 155%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에 개봉 예정인 영화 '7년의 밤' 또한 꾸준히 독자들이 찾는 소설이다. 함평 출신 정유정 작가의 소설로 지난 2011년 올해의 책으로 선정됐다.

송현주 인터파크도서 소설 MD는 "류승룡, 장동건 주연의 '7년의 밤'은 정유정 작가의 동명 소설이 원작이다. 하반기 개봉을 앞둔 한국영화의 원작 소설의 관심은 더욱 상승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같은 스크린셀러의 부상은 원저자에 대한 독자들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믿고 읽을 수 있다는 독자들의 신뢰가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이운정 예스24파트장은 "책이 좋고 작가 파워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며 "정유정 작가의 경우에는 오래 전부터 '7년의 밤'을 영화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독자들은 소리만 요란한 믿을 수 없는 시나리오보다는 스토리가 탄탄한 작가의 작품을 신뢰한다"고 말했다.

한편 가을서점에서는 스크린셀러 외에도 조남주 작가의 '82년생 김지영'도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 평범한 30대 여성 김지영과 가족의 이야기를 다룬 소설은 현재 30만부 돌파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무라카미 하루키의 '기사단장 죽이기'는 발매 3주 만에 50만부 판매를 돌파했으며,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잠'도 상위권에 머물며 여전히 인기를 차지하고 있다. 베르베르는 지난 10년간 국내에서 가장 많은 소설이 팔린 작가로도 집계된 바 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유작된 마광수 소설집 이달 출간

지난 5일 별세한 마광수(66·사진) 전 연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의 유작이 이르면 이달 안에 출간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 교수는 최근까지 새 소설집 출간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전 어문학사 대표는 6일 "단편 21편을 묶어 '추억마저 지우라'라는 제목으로 내기로 했다. 편집까지 마친 상태인데 갑자기 돌아가셨다"며 "유족과 상의해 9월 안에 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표는 "사흘 전 전화하며 단편집·중편·장편소설 순서로 내보자고 얘기했다"며 "중편은 이미 완성됐다고 들었는데 원고는 미처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고인은 지금까지 어문학사에서 소설 '나는 너야'(2015)와 '나만 좋은만'(2015), 에세이 '인간에 대하여'(2016) 등을 펴냈다. 학자이며 작가인 마 교수는 세상을 등지기 직전까지 창작에 대한 열망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고인은 첫 장편인 '권태'(1989)가 생각보다



많이 팔리지 못하며 재출간을 계획하고 있었다고 윤 대표는 덧붙였다.

'추억마저 지우라'는 전체 370여 쪽 분량이다. 왓지 지껄한 파티 장면으로 시작하는 단편 '카리스마'는 소심하고 세상을 무서워하는 한 여성이 마초적인 남성으로부터 사랑을 찾는 이야기다. '번태는 즐거워', '박사학위와 오일 섹스', '고통과 쾌감 사이' 등 제목부터 고인의 솔직함이 묻어난다.

고인은 머리말을 대신해 '그래도 내게는 소중한단'이라는 제목의 서시(序詩)를 썼다.

"시들하게 나누었던 우리의 키스/ 어릴뜨개 어거적거거리만 했던 우리의 춤/ 시큰둥하게 주고받던 우리의 섹스// 기쁘지도 애틍으면서 마주했던 우리의 만남/ 울지도 애틍으면서 헤어졌던 우리의 이별/ 죽지도 못하면서 시도했던 우리의 정사(情死)"("그래도 내게는 소중한단" 부분) /박성천기자 skypark@연휴뉴스



##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9일 6개국 민속음악 협연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예술감독 김광복)의 가을맞이 정기연주회(사진)가 오는 9일 오후 6시 30분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야외무대에서 열린다.

피리맹인 김광복 지휘, 소리꾼 김산옥, 바수 무용 유니버설 문화원 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연주회는 중국, 인도, 티베트, 몽골, 방글라데시, 한국 등 6개국 예술인들이 참여해 전통음악의 향연을 펼친다.

공연에서는 각 나라별 전통 민속음악을 현대 감각에 맞게 국악관현악으로 편곡해 전통악기 연주와 춤으로 선보인다.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의 흥겨운 경기민요연

곡으로 시작해 인도 전통춤, 중국 고쟁협주곡, 티베트 립부 연주, 몽골 전통악기 마두강, 산즈, 타악 연주, 방글라데시 전통 민요와 춤, 흥겨운 남도민요 한마당으로 꾸며진다.

가야금과 유사하고 맑고 고운 소리가 특징인 중국의 고쟁 협주곡(연주 주자립) '절태풍', '침밀밀'을, 피리와 같은 티베트 전통악기 립부(연주 카라켄베)로 티베트 전통민요 '덴기독', 몽골 전통악기 마두강, 산즈, 야트가, 여정 연주곡 '트킬싱승고비', '셀스 타르'를 들려줄 예정이다. 전석 무료관람. 문의 062-415-5403.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 강강술래 만난 마당극 '술래소리' 내일 공연

강강술래가 마당극을 만났다.

놀이패신명(대표 정찬일)이 주관하는 '2017 아트 플랫폼\_푸른길' 마당극 '술래소리' 공연이 오는 8일 오후 7시 남광주 푸른길 공원에서 열린다.

'술래소리'는 우리나라의 민속놀이인 '강강술래'를 기본틀로 삼아 우리나라의 굴곡진 근현대사를 담아냈다. 임제왜란과 일제침략, 한국전쟁과 5·18 민주항쟁 그리고 현재까지의 역사 흐름 속에 어릴 때부터 진가를 발휘한 공동체의 힘을 노래와 놀이를 통해 표현했다.

감았다가 풀었다가, 풀었다가 또 감았다가, 불통의 시대에 과거와 소통하고 사회와 소통하고 이웃과 소통하며 남녀노소 따로 없이 서로 두 손을 맞잡고 뛰고 노래하는 '술래소리'는 배우와 관객 모두가 참여하는 공연으로 놀이를 통해 역사를 인식하고 집단적 신명을 느낄 수 있는 공연이다.

지난 5월부터 시작한 '2017 아트플랫폼\_푸른길' 행사는 '술래소리'에 이어 22일 오후 7시 '꽃 같은 시절' 공연도 예정됐다. 문의 062-527-7295.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놀이패 신명 공연 모습.

## 어린이책 출판사 '비룡소' 12월22일까지 동화 공모전

어린이책 출판사 비룡소의 상상력 브랜드 '고릴라박스'가 네이버의 오디오 콘텐츠 플랫폼 '오디오펜'과 함께 국내 엔터테인먼트 동화 시장을 이끌어 갈 제1회 '이 동화가 재밌다' 공모전을 실시한다.

총 4200만원 상금이 주어지는 이번 행사는 '초등학교를 위한 재미있는 엔터테인먼트 동화' 공모전이다.

응모 자격은 제한이 없으며, 접수는 오는 12월 22일까지 비룡소 본사(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길 62 강남출판문화센터 4층, 비룡소 고릴라박스 편집부 '이 동화가 재밌다' 공모전 담당자)로 보내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bir.co.kr/?p=108711>)에서 확인 가능하다. 02-515-2000.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대산 인테리어 (사업부)

신축건물 설계시공 상가인테리어 조립식건물  
징크시공 케뮤시공 판넬시공 렉산시공 데크시공  
싱크대 샷시 실내인테리어 아파트인테리어

광주광역시 북구 증흥동 373-14  
광주역후문 증흥삼거리 부근

## 한샘가맹점 (싱크, 불박이, 욕실, 마루, 창호, 도어) 062-522-0482

##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 시술 1만여명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아파트 상가2층  
062 673 5858(모발모발)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




